

# 서늘하게 펼쳐보이는 친밀한 세계의 낮설음



한 사람의 불확실

2017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 오은경의 첫 시집 '한 사람의 불확실'이 민음의 시 273번째 책으로 출간됐다.

시집, 산책길, 공원처럼 매일 지나치던 공간에 문득 '어제는 없던 풍선 몇 개'가 떠 있는 것 처럼, 오 시인의 시는 보편적

## 시인 오은경 첫 시집 '한 사람의 불확실' 대상의 떠나감 통해 느끼는 감정 조명

인 일상의 흐름 속에 침투한 순간적인 감각들을 붙잡는다.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녹아 들어서일까, 시집은 마치 일기처럼 읽히기도 한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혹은 '너'로 지칭되는 누군가의 떠나감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이 떠나감은 그러므로 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떠나감은 바뀌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바꿀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대상이 나를 떠나가는 순간의 장면과 자신에게 스치는 감

정에 주목한다. 대상이 떠나간 이유도, 떠나간 대상에 대한 이해도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생생한 감각과 감정뿐이기 때문이다. 순간의 감각만을 담백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많은 기억과 이야기들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다.

시의 화자는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며 느끼는 것을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상처받을 만한 감정을 느낀 후에도 기분을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 않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 태도 덕분에 우리는 화자의 감각을 체험하는 동시에 화자가 겪었을 경험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건조하며 심지어는 매정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태도는 대상도, 감정도 왜곡하지 않는다.

화자는 '너는 나보다 긴 시간을 헤매던 것 같았다', '목도리/ 얼굴의 일부뿐인 것처럼 동여매어 있었다' 등의 묘사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대신 대상의 반자리에 서 있는 화자의 감각을 대리 체험한다.

'한 사람의 불확실'을 통해 우리가 화자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상에게 가 닿으려는 노력 없이 피어오르는 감각들만을 감지하는 화자를 통해 시인의 시집은 무형의 출발선이 된다.

독자들은 화자가 담담한 태도로 완성한 시편들을 시작점 삼아 그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한 각자의 감각과 감정을 고민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시에서 떠나간 이들의 뒷 모습을 보며 저마다 먼저 떠나보낸 대상들을 대입해 볼 수도 있다.

세상을 향해 내미는 나의 손길이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유령처럼 느껴지는 현실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나도 그런 유령들 중 하나인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 유령의 순간을 잊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친밀한 세계의 낮설음을 서늘하게 펼쳐보는 이 시집을 통해, 그 혼란 비명이나 울음 한 점 없이 찾아왔던 우리 내면 속 아픔을, 진심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오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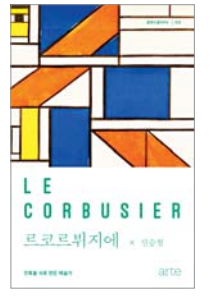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 감염 내과 교수와 과학전문 기자가 코로나19 사태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생각의 힘. 252쪽.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지,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등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꼭 생각해봐야 할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철수와영희. 128쪽.



◇르코르뷔지에 = 예술과 과학,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가 현대 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지에의 생애와 예술의 흔적을 찾아가며 그의 건축 세계에 깃든 정신을 확인한다. 아르테.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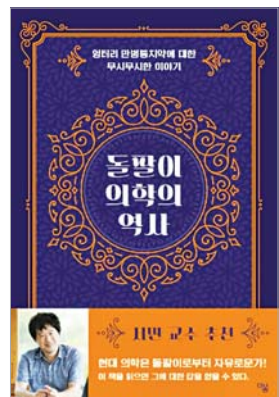


◇더 셸리 클럽 = 2015년 등단한 박서련 소설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로 셸리로부터 힘을 얻은 셸리가 우연히 만난 미지의 사랑 'S'를 찾아 호주 전역을 헤맨다. 재미있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소설. 민음사. 228쪽.



# 상식 밖의 엉터리 의학 세계사

## 만병통치약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



돌팔이 의학의 역사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은이 들어간 두통약을 복용하고선 중금속 중독으로 더욱더 나쁜 증상에 빠졌다.

작곡가 모차르트는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피를 2리나 흘리며 의식불명이 돼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사망했다.

유럽 절대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는 생애에 무려 2,000번이나 관장을 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 관장이 유행하게 됐다.

미국의 의학자인 리디아 강과 역사학자인 네이트 페더슨이 함께 펴낸 '돌팔이

의학의 역사'는 상식 밖의 의학 세계사이자 위험한 약과 엉터리 치료의 세계사다. '치료법이 질병보다 더 악하다'는 속담을 증명해준다고나 할까.

이 책은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엉터리 약과 돌팔이 치료법의 역사를 찬찬히 들려준다. 기괴한 약에서부터 위험한 치료까지 67가지의 치료법들을 망라한다.

진실로 환자를 치료하려는 선의와 동기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무지몽매함으로 더 아픈 고통과 더 나쁜 치료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예컨대, 견과류를 피임약으로 쓰거나 출혈을 치유키 위해 피를 뽑았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진흙을 먹었고, 매독을 치유할 목적으로 수은 증기로 가득 찬 방에 노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릇된 요법의 배경에는 인간의 생존 욕구라는 강렬한 힘이 존재했다.

물론 이런 욕구가 대단한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제 환자들은 마취 상태에서 별다른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 앞선 환자를 수술한 의사의 손에 고름이나 세균이 묻어 있거나 앓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의료 역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팔이들로부터, 그리고 무지한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권한다. 질병과도 같은 의료 사기꾼들을 물리치려면, 인체의 기능과 질병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추천의 글에서 "의학이 제 모습을 갖춘 건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이전까지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돌팔이 의학이) 무수히 죽였다"며 "1900년 이전까지 의학의 역사는 '돌팔이 의학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보체는 아이에게 아편을 먹인다거나, 건강한 외모를 위해 비소를 먹거나, 성욕 증진을 위해 스트리키닌을 먹는 행위 등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가 그 시절의 참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사기꾼들을 물리치려면, 인간 신체의 기능과 질병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질병과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로 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부희령 옮김. 더봄 펴냄. 432쪽. /연합뉴스

## 정지아 소설가 김유정문학상 수상

### 구례 출신...수상작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



올해 제14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자로 구례 출신 정지아 소설가(55)가 뽑혔다.

1일 주최 측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수상작은 정지아의 단편소설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 (대산문화 2020 봄호)이며, 상금은 3,000만 원이다.

정지아 소설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1년 실전문학에서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을 출간했고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소설집 '행복', '봄빛', '술의 대화'가 있다. 이호석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등을 받았다.

김유정문학상은 최수철·이인성·박형서·한강·편혜영 등이 수상하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7일 강원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다. /이연수 기자

## 출판사·서점 67% "도서정가제 도움...강화또는 유지"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에 대해 출판사와 서점들의 압도적 다수는 이 제도가 도움이 되며 현행보다 강화되거나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도서정가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7.3%로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6.3%)의 4배가 넘었다. 개정 방향에 관해서는 '강화'(56.6%) 또는 '유지'(27.3%)돼야 한다는 응답이 84% 가까이 나왔다. /연합뉴스

# 알레르망, 클래스가 다른 부드러움

**용봉점 알러지방지 침구 / 커튼 / 블라인드**

광주 북구 용봉동 1346-8 (설죽로 255)

**Allerman**

한국상공회의소 이노베이션어워드  
2018 비즈니스 혁신상 수상

**광주용봉점**

**062.263.0929**